

완도, '지방규제혁신' 전국서 인정

도내 최초 우수기관 선정... '입증책임제' 호평
주민·기업 애로사항 70건 중앙부처 건의 성과

완도군이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0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에서 전남도내 최초로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18일 완도군에 따르면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는 시·군간 자율 경쟁을 유도하고 지방규제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부가 2018년부터 도입한 제도이다. 우수기관 선정은 민·관 합동 인증심사위원회가 규제혁신 기반, 프로세스, 성과

등 공통분야 15개 세부 진단 내용과 분야별 6개 세부 진단 내용을 평가해 1차 서면심사와 2차 현지 실사를 거쳐 선정한다. 올해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앙도군을 비롯한 9곳이 신규 인증 기관으로 선정됐다. 선정된 기관은 내년 1월 인증패와 재정 인센티브를 받는다. 완도군은 규제혁신에 대한 기관장의 강한 의지와 혁신 마인드를 기반으로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주민·기업이 건의한 규제개선 과제 등에 대해

'규제입증책임제'를 적극 활용해 규제준치 여부를 검증·개선했다. 규제혁신 기반·프로세스 및 기관장 관심도 등 모든 지표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주민·기업 규제애로 사항을 건의받아 진행 상황을 수시로 알리고, 이를 바탕으로 분야별 규제개선 과제 70건을 발굴해 중앙부처에 건의했다. 그중 '어업권 행사 문제 해소'와 '도서관 승선절차 간소화'로 도서관 해상교통편의 증진 등 2건이 적극 행정을 통한 규제해소 사례로 선정, '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 보종금 반환 규정 폐지' 건의 과제가 중기부(읍부조반) 지방규제개선 사례로 수확했다. 또한 '자연 재난 피해 신고 시 서류 입

식 및 출하신고 기간 연장' 등 7건이 생활속 규제혁신 개선 사례로 선정되는 등 큰 성과를 올렸다. 신우철 군수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규제혁신을 통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청취해 지역 실정에 맞는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완도군은 지난 9월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20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취업허가 하용 확대, 전국 최초 시범 운영' 규제혁신 사례를 발표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완도=최규욱 기자



영암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 국제자동차경주장에서 열린 2020 영암 튜닝카 레이싱 대회 드래그 종목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영암군 제공

영암 튜닝카 레이싱 성료

170개팀 100여대 전시차 참여...온라인 생중계

'2020 영암 튜닝카 레이싱대회'가 최근 영암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 국제자동차경주장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18일 영암군에 따르면 사단법인 대한모터스포츠협회(회장 조성철)가 주최·주관한 이번 대회는 170개 팀, 100여대의 전시차량, 600여명의 대회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이번 대회는 드래그, 드리프트, 짐카나 등 다양한 종류의 레이싱 대회를 구성해 경주장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레이싱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축제형 대회로 개최됐다. 자동차가 직선 400m를 경주해 순위를 정하는 '드래그레이싱'은 250마력 미만, 250마력~350마력, 350마력 이상 무제한급 등 3개 클래스에서 16강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됐다. 서킷을 미끄러지듯이 주행하는 '드리프트'는 2인 1조의 팀배를 토너먼트 경기로 진행해 선·후행 차량이 드리프트 시

근접한 거리 간격 유지, 주행 퍼포먼스, 각도 연거림 등으로 순위를 정하는 방식으로 실시됐다. 또한 모터스포츠 핵심 기술인 가속, 감속, 코너링 등을 겨루는 '짐카나' 경기는 목표시간을 정해 그 시간의 근접기록을 순위로 정하는 타겟타임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해 열린 이번 대회는 유튜브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대회를 생중계해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전동명 군수는 "천혜의 조망권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최초의 국제자동차경주장인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의 활용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대회관계자 및 참가자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앞으로 영암 튜닝카 레이싱대회가 대한민국 최고의 모터스포츠 대회로 거듭나서 지역경제에도 큰 활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암=최복섭 기자

해남 특색있는 가로경관 조성 꽃치자·이스라지 등 심어

해남군이 읍 시가지 주요도로변에 특색있는 가로경관을 조성해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18일 해남군에 따르면 군은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창출하고 주민들에게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관내 주요 도로변에 코니카기문비, 이스라지, 꽃치자 등을 심어 색다른 경관을 연출하고 있다. 고도사거리-해남교차로 중앙분리대 500m에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닮은 원추형의 코니카기문비 95주와 황금빛 화려한 잎을 자랑하는 황금세달 9,160본을 심었다. 남부순환로 1.5km구간에는 열매와 꽃이 아름다운 이스라지(산앵두) 582주, 꽃치자나무 1만 1,720주를 심고, 국도 제 13호선 해남터널 진·출입로 등 7개소에는 사계절 황금빛을 볼 수 있는 황금사철 등 8종, 2만 1,870주를 심었다. 이 구간에는 달맞이꽃 등 5,800본의 화려한 꽃이 피는 수종을 심었다.



피낭시에 제과점 이현미 대표가 해남 고구마빵을 선보이고 있다. /해남군 제공

'해남 고구마빵' 상생협력 경진대회 우수상

군은 이번 가로수종 조성을 통해 도시미관 증진은 물론 차량 배기가스 배출로 인한 대기오염 완화와 미세먼지 저감 등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특색 있는 가로경관길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유지관리해 도로변의 공원을 이루겠다"며 "군민과 관광객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남=박병태 기자

대한상공회의소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한 '2020 농업과 기업 간 상생협력 경진대회'에서 해남 피낭시에 제과점의 고구마빵이 우수상을 수상했다. 18일 해남군에 따르면 상생협력 경진대회는 농업계와 기업이 상호 협력해 경쟁력을 높이고 농식품의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발굴 및 시상함으로써 상생협력 문화를 더욱 확산하기 위해 마

련됐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농식품 상생협력 추진분부를 통해 총 28개의 사례가 접수됐고 서류 및 인터뷰 심사 등을 거쳐 우수사례 10건이 최종 선정됐다. 피낭시에 제과점은 해남고구마빵으로 농심 켈로그, CJ ENM 등 경쟁한 대기업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우수상을 수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해남=박병태 기자

고구마와 똑같은 빵모양에 빵의 속이 부드러운 고구마로 채운 고구마빵은 지난 2018년 출시돼 지역 대표 특산물로 꼽힐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고구마와 찹쌀 등 재료를 전량 지역 농가들이 생산한 로컬푸드를 사용하고, 먹거리를 통한 외부 방문객 유치 등 2·3차 산업 발전에 기여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해남=박병태 기자

진도, 윤림아트마켓 21일 개최

진도군이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독특한 수공예품 판매와 다채로운 공연, 체험 등의 윤림아트마켓을 오는 21일 윤림산방에서 개최한다.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 예정인 '윤림아트마켓'은 진도에서 생활하는 예술가들이 참여해 분인들이 직접 만든 수공예품과 미술품을 판매한다. 진도군은 행사에 참여한 관람객을 대상으로 체험과 공연을 통해 관광객과 주민들에게 재미있고 다채로운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윤림아트마켓에 참여하는 품목은 생활

도자기, 양초 공예품, 디퓨저와 생활한복, 전통소품, 다육수재 화분, 염사 노트 등 웹툰 작품이다. 또 진도군 아트상품, 라탄 공예품, 뜨개소품, 진도음금 비누, 도자기, 천연염색 등 체험도 가능하다. 먹거리는 진도대파빵, 울금뿔빵, 대파스콘과 유기농 더치커피, 수제정과 수제과자, 진도 속을 활용한 송편도 함께 판매할 예정이다. /진도=박병태 기자

클릭! 고향 속으로



무안 일로읍, 행복나눔 연탄배달 봉사

무안군 일로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최근 관내 저소득층 3가구를 대상으로 현대삼호중공업 반장협의회와 연계해 행복나눔 연탄배달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현대삼호중공업 김형관 대표이사과 반장협의회 회원 40여명은 사랑의 연탄, 전기장판, 겨울이불 등 물품을 관내 소외계층에 전달했다.

연탄을 지원받은 A씨는 "직접 찾아와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도록 도움을 줘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 함경호 일로읍장은 "봉사활동에 참여해 주신 현대삼호중공업 김형관 대표이사과 반장협의회 회원들에게 깊은 감사사를 드린다"며 "소외된 이웃들이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무안=박주현 기자



강진 희망나눔사업단, 구로마을서 봉사활동

강진군 군민행복 희망나눔사업단은 최근 칠량면 구로마을을 찾아 주민들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봉사자와 마을주민들이 함께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복지·생활·의료·건강·기타분야 등 30개 분야로 나뉘어 추진됐다. 참가자들은 발마사지, 네일아트, 이·미용을 비롯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보일러, 도배 및 장판 교체 등의 개·보수 작업을 진행했다. 또한 보이스피싱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남부농협의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교육도 실시했다. 최한섭 구로마을 이장은 "코로나19로 어르신들이 병환 한 번 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직접 마을에 방문해 진료도 해주고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 /강진=한태선 기자



영암소방서, 어르신 대상 소방안전교육

영암소방서는 최근 겨울철 화재위험의 사각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삼호읍 종합복지관을 방문해 소화기 사용법, 안전한 화재대피요령, 심폐소생술 방법 등을 안내했다. 특히 화재가 발생하면 대피를 우선시할 것, 119에 신고할 때 절대 전화를 끊지 않고 화재에 대한 정보를 계속 제공해

줄 것, 호흡이 곤란한 환자는 가슴압박이 어려울 경우 기도를 확보하고 꼭 끼는 옷을 벗겨 자연스러운 호흡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등을 당부했다. 영암소방서 관계자는 "겨울철 화재에 취약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경로당 등에 찾아가는 소방안전서비스를 펼쳐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영암=최복섭 기자